

◎ 시멘트業界 GR에 對한 對備를 서둘러야 한다

김 영 준

〈東洋시멘트(株) 輸出部〉

1. 머리말

80년대 중반이후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구미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요 무역국들이 경기침체, 구조적 무역 불균형에 의한 무역적자, 실업증가 등으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정치·군사적 대결 양상이 퇴색하고 경제우위의 논리에 근거하여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각 국의 경제적 이익확보를 위해 지역주의적 배타주의, 때로는 힘의 논리에 근거하여 자국 산업보호 및 이익 극대화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과거 최대의 무역권이었던 EC의 통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 급세기 최대규모의 다자간협상인 UR의 타결, 태평양시대의 개막을 표방하고 있는 APEC 등 전후 GATT 중심체제의 세계무역질서는 교역시장을 통해 세계 경제를 되살리자는 취지아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자국의 경제이익만을 찾고자 하는 일부 선진국들의 일방주의 및 지역주의 추세의 확산이 저지되고, 구체적인 무역규범이 국경을 초월해 후발 개도국의 대선진국교역불공정이 시정되는 등 공정경쟁의 기반이 마련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곧 본격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협약(GR)의 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에 따른 총체적 개방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맞이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재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실로 새역사의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하겠

다.

2. NAFTA, UR의 타결과 우리 수출입 산업에 미치는 영향

'90년대 들어 가속화된 국내의 경기침체, 무역적자 심화, 실업 증가 등 경쟁력의 약화로 EU, 일본 등의 경제력 부상에 대해 불안을 느낀 미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캐나다와의 FTA 협정과 멕시코를 포함하여 총 GNP 6조4천억달러를 포괄하는 NAFTA협상에 착수했다. 거의 3년의 협상을 거쳐 '94년 1월부터 발효한 NAFTA는 생산요소의 이동 및 통화의 통합까지 이르는 EU의 경제블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나 앞으로 칠레 등 남미국가까지 포괄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최대의 지역단일시장 형성이라는 점, 노동 및 환경부문이 포함된 세계 최초의 무역 협정이라는 점,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수출산업에 주는 여파가 결코 작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2대 지역주의 통합시장(NAFTA, EU)에 대응, 아시아권지역시장 통합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NA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시급한 산업별 대비책의 마련은 단지 북미지역시장에서의 우리 수출산업의 득과 실 이외에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지역주의경제블럭에 대한 대비라는 점에서도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NAFTA의 체결과 더불어 '86년 9월에 출발하여 7년간 첩예하게 대립해왔던 제8차 다자간협상(UR)

이 마침내 지난 12월 15일 타결되어 '95년 7월 1일 부터는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되었다. 전세계 117개국 협상대표가 참가한 역대 최대규모의 다자간협상이라는 점과, 과거의 다자간협상때와는 달리 우리의 경제적 지위가 세계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진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의 무역협상안과 달리 UR은 현재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운 서비스 분야와 농업분야가 새로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었고, 교역에 장애가 되었던 각종 관세 이외의 장벽, 즉 비관세 장벽을 실질적으로 철폐하는 협의 도출, 선진국들의 부당한 무역제한조치의 남발 방지, GATT 후속체제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및 법적 구속력 강화 등, 21세기 국제무역의 새로운 질서의 장을 열었다.

협상과정 또는 사안별 협상결과에 대한 대내외의 비판이 없는 것도 아니나 국제화 시대에 고립이란 것은 곧 파멸을 의미함이고 남의 나라 시장을 개방하라는 일방주의가 아닌, 모두가 자기 시장을 개방하지는 취지로 볼때 긍정적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7년 가까운 협상기간동안 농업 및 서비스분야에 대해 우리가 견지해온 배타적 접근은 결국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에 비해서도 크게 낙후된 현실을 우리에게 남겨놓아 기초농산물에 대한 2000년까지의 농가 피해액은 13조원 가까운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전산업에 걸쳐 연계성을 갖는 금융·유통시장 등 서비스업의 본격 개방으로 산업별 이해특질의 차원을 넘어 많은 여파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현실이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조심스런 긍정의 전망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우선 NAFTA의 발효에 따른 우리의 대미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보면, 구미지역에서의 구매력 증대가 예상되어 전반적인 수입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나, 반면 '88년이후 우리의 미국내 시장점유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상품과 상당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멕시코 상품이 가격경쟁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 우리의 대미수출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 측면이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특히 역내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 철폐, 원산지 규정 강화등의 요인으로 섬유, 의류, 신발, 피혁제품 등 경공업제품의 수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한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등의 수입선을 역내국으로 전환함에 따라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대미수출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대미수출 감소는 NAFTA의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최고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미수출 또한 총수출의 10%안팎이어서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큰 영향은 없다고도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이 품목별 유예기간동안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번째로, UR의 타결에 따른 우리산업에의 영향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주의적 역내·외 국가간의 차별에 따른 접근으로 산정하기에는 너무도 포괄적이다. 현재까지의 각종 연구기관 보고에 따르면, 개별산업 또는 기업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농축산물 분야의 섬유·신발·석유화학·기계 등 일부 공업 분야, 금융·환경 등 서비스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주도품목인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업종에서는 무관세화 또는 관세인하, 반덤핑 요건의 발동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쟁우위의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R협상 타결에 따라 관세장벽의 완화로 전체적인 산업수지는 향후 10년간 총224억9천만달러의 수출증대와 80억달러의 수입증가로 10년에 걸쳐 총 144억3천만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관세율이 종전대비 33% 낮아질 경우 2~3년후에는 총수출증대효과가 49억 6천만달러, 수입증대효과는 4억5천만달러로 45억달러의 국제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농축산분야에 대한 개방으로 농업소득의 44%를 점하고 있는 쌀의 경우, 우리 농업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5개 기초농산물의 개방에 따라 2천년까지 13조원의 농가피해와 연평균 0.5%미만의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UR협정의 타결이 각국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쌍무협상 등의 개별협약, 환경협약(GR)의 본격협정의진행 및 무역규제 대상 포함여부 등에 대해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이므로 주어진 품목 또는 국가별 협상안에 대해 최대한의 노력으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준비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각종 규제 및 세제와 지원제도 등을 개방화시대에 맞도록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고 기업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단한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몇몇 대기업들이 UR타결에 대해 느끼는 반향이 “별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점은 그동안 기업 각자가 꾸준히 글로벌화를 통해 최고의 상품만들기에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라는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3. 건설시장 개방 및 영향

NAFTA의 체결, UR타결에 따른 시멘트산업에 대한 영향은 다른 모든 상품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범위에서 볼때, 다른 상품에 비해 특이성을 나타내는 개별분야로 협의된 부분은 없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건설부문의 자재성격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시멘트 자체의 분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때, 시멘트 자체의 성격은 GR과 연계하여 뒷장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UR의 건설시장개방 및 그 영향을 살펴보면, 민간건설부문과 공공건설부문으로 나누어 협의되었는데 민간건설의 경우 서비스 협상을 통해 '95년 7월 발효로 예정되어 있고, 공공건설부문은 정부조달협상을 통해 협의되어 공공기관 및 건설공사범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정부조달협정 발효일('96. 1. 1)로부터 1년간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민간건설부문보다는 다소 개방시기가 늦춰진다.

각국이 민간건설분야의 외국인 투자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공공건설분야에서는 각국의 양허대상기관과 공사 범위에 대해 신축성을 부여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정부공사는 약 50억원이상, 지방정부 및 정부투자기관공사는 약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 국내업체와 동등한 입찰기회를 부여하였다. 지금까지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은 국내 기존업체와 합작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왔으나 UR의 타결로 특히 국내 건설 시장의 55-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건설시장이 '94년부터 점진적으로 개방되어 '95년부터는 치열한 경제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협소한데 따른 덤핑입찰, 과당경쟁 심화, 경쟁력 취약분야인 기술집약형 공사 및 엔지니어링분야의 잠식 등으로 일부 취약업체의 경영난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로, 건물 등 일반 토건부문은 단기적으로 외국업체의 급속잠식의 우려는 적으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해저터널이나 플랜트의 기술 집약형부문과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부문에서의 외국업체참여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타 서비스 분야와는 달리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업계의 노력여하에 따라 다분히 유동적일 것으로 보이며 각국 모두가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 우대원칙에 준하므로 결국 일본 및 동남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기회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는가가 관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건설부문에서의 시멘트업체도 기존의 판매유통망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많은 가능성을 얻게 된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건설 업체간의 동반자적 이해정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주변국가의 시멘트 시장 변화와 우리의 대응책

현시점에서 시멘트업계의 개방에 따른 여파를 전망하기에는 내수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큰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근린국가인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여러국가의 내수신장추세 등의 영향에 의한 국외의 외부변화요인에 따른 영향으로 이들 국가로의 진출, 제휴, 투자 등에서의 가변성에 대한 고찰이 우리 업계의 당면한 현안이라고 본다. 80년대 중반기이후 태평양에 접한 아시아권 국가들의 본격적인 경제개발로 국내를 포함하여 전후 최대의 시황변화를 맞고 있다. 동남아 각국은 연평균 10%내외의 건설할 수 요증가추세에 힘입어 의욕적인 대규모 설비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업체를 중심으로 한 이들 해외

.....GR에 對한 對備를 서둘러야 한다

거점에 대한 활발한 자본투자로 현지생산설비의 신·증설이 '90년대 시멘트업계 변화의 큰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이 개발정책을 가속하여 대규모 경제개발에 수반해 높은 시멘트의 수요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 자원고갈 등의 문제로 대만이 이 지역 최대의 수입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91년 중반 원화환율의 해제로 폐기설비의 재가동에 들어간 일본업계는 자국내의 수요감소추세에서 수출의 대폭 확대로 최대의 수출국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90년대초 해외에 본격 진출한 공장이 점차적으로 완성됨에 따라 근린 2~3개 국가의 업체와 제휴를 통해 개방화 및 지역주의에 부응하는 새로운 물류흐름을 적극 추진해 권역화된 지역내에서의 원활한 시장수급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국경의 개념을 넘어 수요지, 공급지, 원산지를 포괄적으로 묶는 새로운 물류흐름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미지역에 비해 아시아로의 진출이 적었던 유럽의 대형 시멘트 다국적기업이 태평양시대의 경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하여 싱가포르 등지에 자사를 설립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으며 플랜트 설비기업에게도 이미 최대의 시장으로 부각된지 오래다.

이와같이 국내시장의 급속한 변화만큼이나 국제시장의 동향변화도 일정한 틀을 잡아가며 이행되어 가고 있고 자국의 수급변화의 형태가 인근 국가 및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국내업계의 동향을 보면 활발한 설비투자의 신·증설로 곧 국내 총생산능력 5,600만톤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최근 4년간의 증설량 약 2,000만톤의 설비투자는 매 2개월마다 100만톤 정도의 설비증설이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최신설비의 도입에 따라 시멘트생산국가중 최고의 설비와 효율을 갖추게 되었다. 초기단계는 무리한 확충이라는 비난도 많았으나, 결국 국내수급의 안정에 기여하였고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잠재력을 배가시켜 업계의 성장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적 흐름은 우리업계 모두에게 미래의 꾸준한 개척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보

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행동양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남겨 놓았다.

그 첫번째 과제가 UR의 타결과 더불어 더욱 본격화된 GR에 대한 대비책이다.

시멘트분야는 오히려 UR의 타결과보다는 다가올 GR의 환경규제와 더불어 고찰해야할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GR은 UR 및 NAFTA보다는 개방의 강도가 훨씬 높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NAFTA에서는 구체적인 규범이 명문화되어 무역규제로 발전되고 있는 점 등이 GR에 대한 시급한 사고의 전환과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당면한 GR협상은,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새로이 제기한 신 산업보호수단으로 '90년대 국제 질서의 최대 현안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GR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52개의 환경관련협약중 17개는 이미 협약자체에 무역규제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최근 ISO(국제표준기구)는 '96년부터 국제표준규격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협약중 시멘트업계 및 국내의 모든 산업계에 큰 타격을 줄 협약은 기후변화협약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어 지구온난화방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뒤따를 내용이 온실가스의 배출규제인데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가 급선무라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므로 이의 사용규제는 곧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직결된다.

이점에서 이 규범의 심각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곧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시멘트업계 및 철강, 석유화학업종에 직·간접으로 큰 여파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우기, '90년대 중반경 OECD에 가입하게 되면 개도국에 대한 유예조항조차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에너지 부문이 시멘트 제조원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 및 투자가 경쟁력과 당연히 맞물릴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이 이미 리사이클링 시스템도입으로 환경관련투자를 기업경영의 비용이 아니라 재생산의 기회라는 부분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음을 볼 때,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사고의 정립과 기술투자가 시급한 현실이다.

UR에 의해 국경의 개념이 무너졌고 GR에 의해 생산제품의 제조공정까지 규제하는 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생산과 판매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두번째로 과감한 해외시장개발 및 국제화 추진이다.

블럭주의의 강화로 국가별 국경이 무너진 대신 경제국경의 형성이 활발하다.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화교 경제권, 일본주도의 동아시아 경제권, 동남아국가의 성장삼각지대 등 주변국가를 중심으로 태평양권내에서도 크고 작은 경제블럭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하므로 비판이 많으나 이런 움직임에 뒤떨어지면 결국은 변방국가로 밖에 남을 수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협상 대상국이 될 수 있는 위치를 점해야 하며 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보도된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NAFTA 가입추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는 점은 가입에 따른 우리의 득실에 앞서 상대방이 보는 블럭경제주의의 흐름을 보여주는 좋은 시사점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경제권의 움직임에 대한 또다른 예를 들어보자.

일본정부 및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환동해 경제권」이 몇해 전부터 자주 보도되고 있다. 러시아의 하바로브스크, 중국의 훈춘, 북한의 나진, 한국의 동해안지구, 일본의 동해연안지구를 하나의 무역권으로 묶는 것으로 일본의 지방정부 및 민간연구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이와관련, '92년에 동양시멘트는 이 지역 시마네현으로부터 수출시멘트의 공공공사 사용에 대한 허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있다. 이는 지역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본 지방정부의 내적·외적 표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결국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우리업계의 지역적 특수성, 즉 단양, 제천, 영월 중심의 내륙기지와 동해, 삼척의 연안지지를 특성에 맞는 시장전략으로 운용하여 국경없는 시대에 맞는 업계의 국제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향후 GR이 매듭되어 가면 또다른 파고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TR(테크노 라운드)를 일



컸는 말이다.

일본의 몇몇 시멘트업체의 해외시장개발전략을 보면 결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풍부한 자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치밀한 시장조사와 남보다 앞선 정보력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투자를 통한 부단한 시장확보전략을 추진한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세번째로 우리 업계의 경영혁신노력이다.

해방후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시멘트산업은 국내 어느 산업보다도 역사가 깊다. 국내 산업화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현재도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역사만큼이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의 집약이 많은 업종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40년 가까이 내수를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내재된 보수성 및 기업체질의 심약성 또한 우리 업계의 현실로 인식되고 있다. 그만큼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맞는 혁신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외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감원이나 감량경영의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4~5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소규모기업이 아닌 깊은 역사와 첨단 기술력을 가진 선두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결코 먼 남의 나라 현실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다. 각자 스스로 새로운 질서에 맞는 체질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정체된 기업은 결국 도태될 것이고 새로움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자만이 다가올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